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31일(수) 총 5매	
담당 부서	예술정책과	담당자	• 음악도시팀장 조운경 ☎ 440-4111 • 담당자 황우재 ☎ 440-411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전설적 라인업으로 8월 2일 개막

-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잔나비 데뷔 10년 만에 헤드라이너로 -
- 브라질 메탈 밴드 세풀투라의 마지막 아시아 공연! 인천펜타포트서 만난다 -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우리나라 대표 음악 축제 ‘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하 인천펜타포트)’이 오는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2024 인천펜타포트 역시 국내외 뮤지션을 한데 모아 한 여름밤을 날려버릴 뜨거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제57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록 퍼포먼스상 수상 등 그래미 어워드 12회 수상 기록이 빛나는 전설적 기타리스트 잭 화이트(JACK WHITE)를 비롯해, 턴스타일(TURNSTILE), 잔나비, 김 고든(KIM GORDON), 세풀투라(SEPULTURA), 걸 인 레드(GIRL IN RED), 라이드(RIDE), 실리카겔, 데이식스(DAY6) 등 국내·외 최정상급 락 밴드 58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 등 역대 최고의 라인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브라질 메탈 밴드의 세폴투라는 인천펜타포트를 거쳐 유럽공연을 끝으로 40년의 밴드 역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폴투라의 팬이라면 2024 인천펜타포트가 아시아에서 세폴투라를 만나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라인업 중 주목할 점은 ‘펜타 슈퍼루키’ 출신 잔나비가 이번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른다는 것이다. ‘펜타 슈퍼루키’는 인천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실력 있는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 및 육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상위 6팀은 인천펜타포트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지며, 대상팀에게는 해외 페스티벌 출연 기회도 제공된다. 잔나비는 데뷔 10년 만에 인천펜타포트의 헤드라이너로 메인 무대에 올라 감동스런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인천펜타포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축제로 지정되어 3년간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용 태세를 비롯해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는 새롭게 ‘펜타포트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펜타포트 쇼케이스’에는 홍콩, 일본, 필리핀, 대만 등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 관계자들과 Warner Music Japan, Sony Music Entertainment Japan 등의 레이블 관계자들을 초청해, 펜타포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국내 아티스트들과 해외 음악산업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15만 명 정도의 내외국인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인 인천펜타포트에 다회용기를 전면 사용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약 2.5톤을 감축하는 등 세계적인 기후 위기 극복에도 적극 동참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속되는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날려주고 시민들 마음속에 진한 감동과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 안전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붙임> 행사 포스터 및 관련 사진

붙임

행사 포스터 및 관련 사진



